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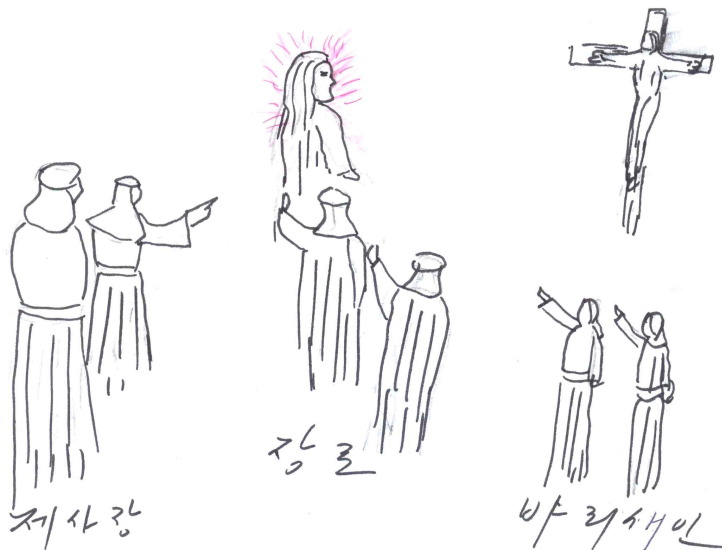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정이 아니다

본 문 마태복음 16장 21-2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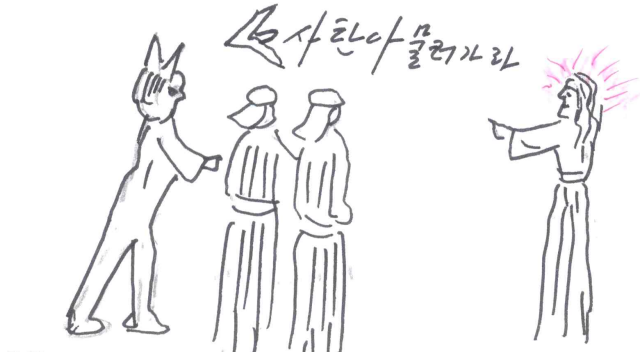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1> 예수님은 곧 예루살
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
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했습니

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영상1 끝>



<영상1> * 설교 속도에 따라 영상 제작 (초안 + 영화 영상 사용)

<자막> 설교 내용 그대로 자막

1.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을 말씀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그때 예수님의 육은 죽고, 그 영은 음부에 있는 영옥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심판받고 죽은 영들이 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사망권에 가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음부 옥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그 영이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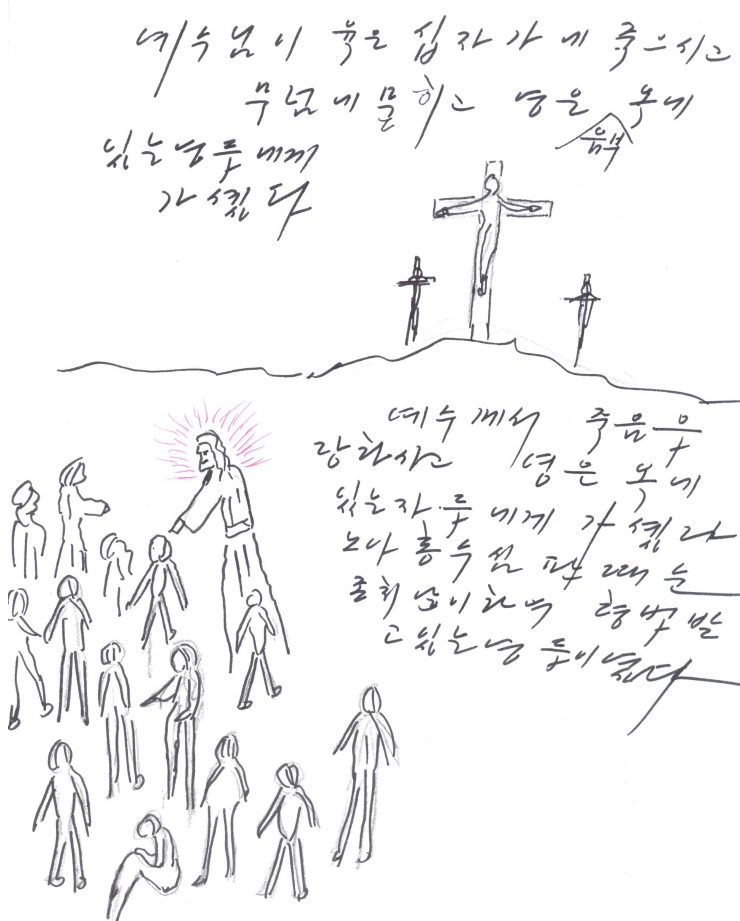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만나시고(눅 24:13-31), 제자들의 집에 가서서 방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눅 24:36).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요 21 장).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행 1장)

<영상2>

* 설교 속도에 따라 영상 제작 (초안과 영화 영상 같이 사용)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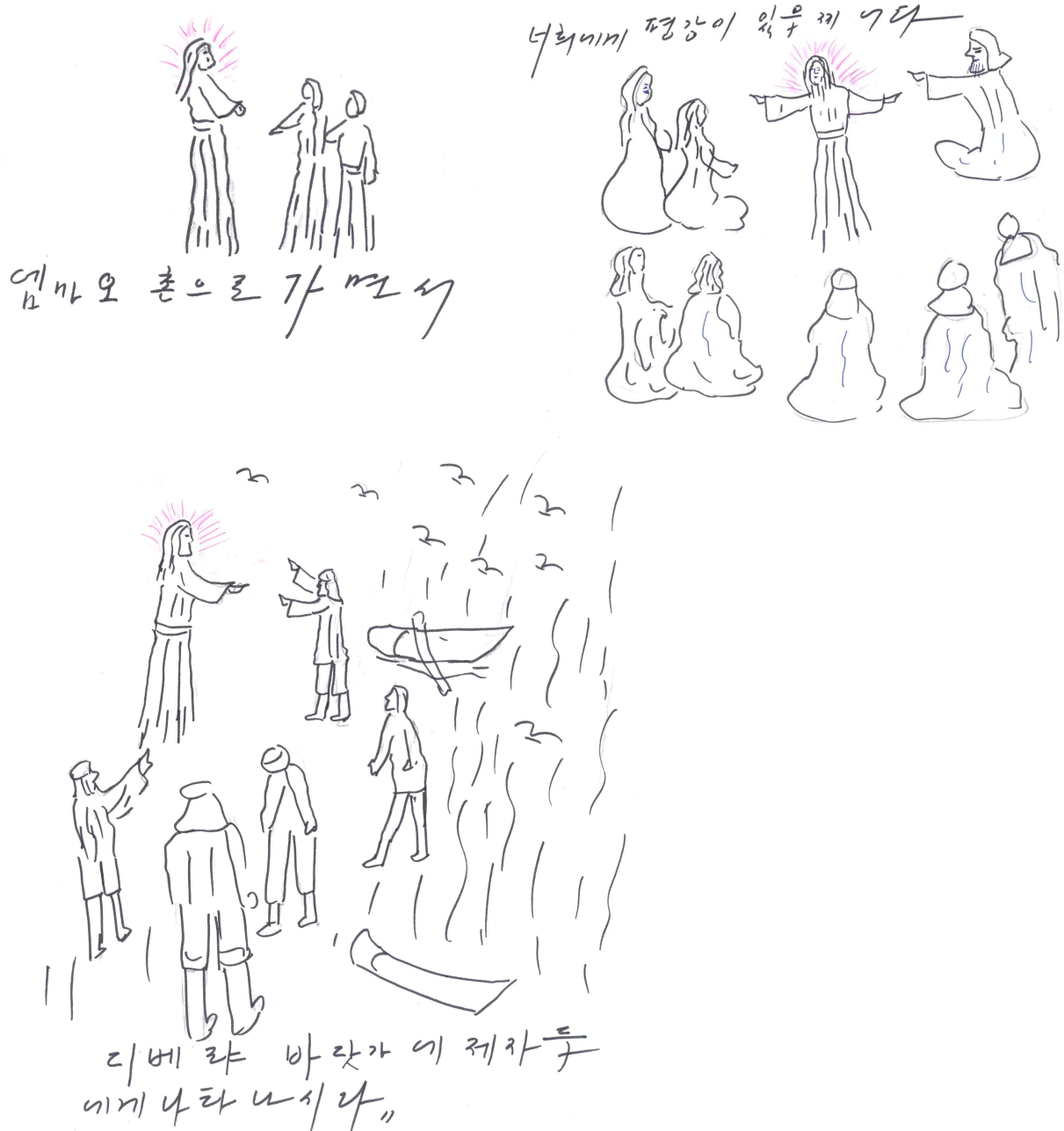


<자막> 그때 예수님의 육은 죽고, 그 영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습니다. 그곳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심판받고 죽은 영들이 간 곳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사망권에 가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② 해당 영상 (초안 참조 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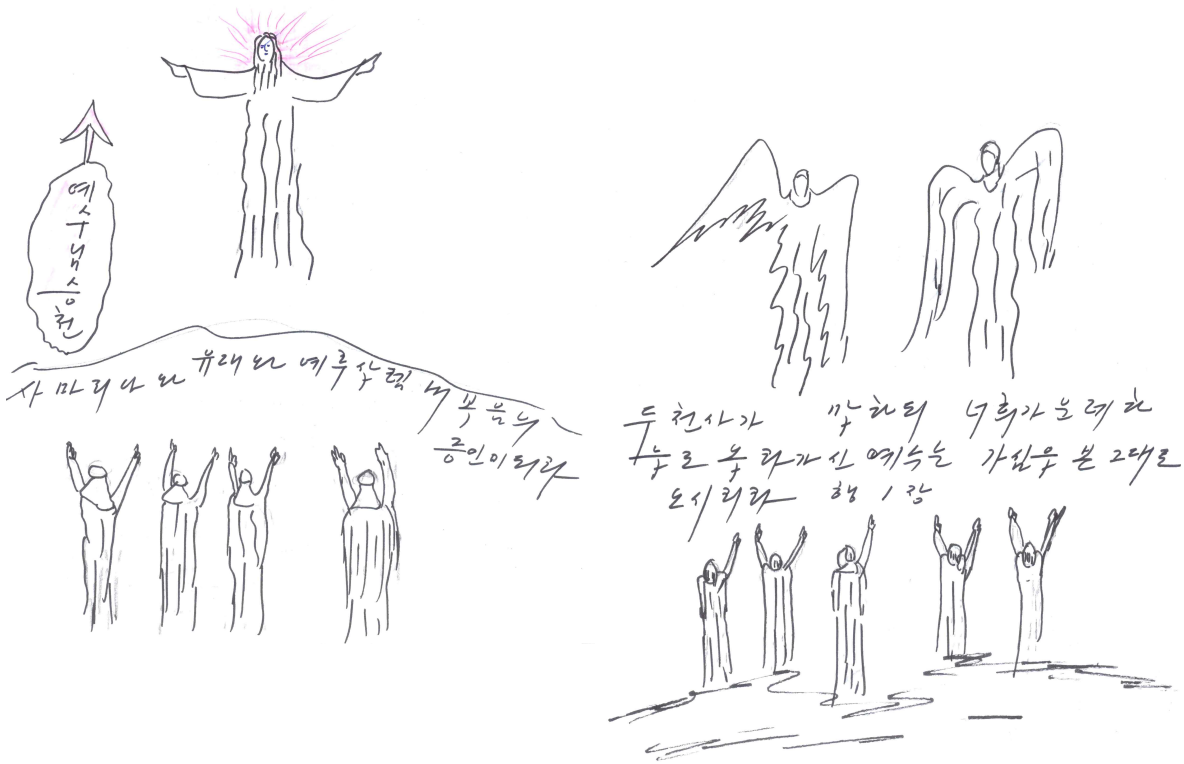
<자막>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음부 옥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그 영이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③ 해당 영상 (초안 참조 2-1, 3페이지)



<자막>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만나
시고, 제자들의 집에 가셔서 방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상 중에
자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상이 좀 더 나온다.”) / 그리고
디베라 호숫가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④ 해당 영상 (초안 참조 3-1페이지)



<자막>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육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 들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면 영원히 삽니다. 고로 모두 영을 사망에서 살려야 됩니다. 영 부활, 영 구원이 최고입니다. ‘부활’에 대해 알아야 자기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을 온전히 부활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 사망에서 나왔기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사망권에 갇혔다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나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면 못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영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 영이 신약시대를 통치하면서 제자들을 그 몸으로 쓰시면서 복음 역사를 폈습니다. 고로 2000년 동안 신약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2000년 동안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죄인들을 위해 아예 내주고 희생하고 죽어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영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으로 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 이 말을 절대 믿고 알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말씀입니다.

2.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을 말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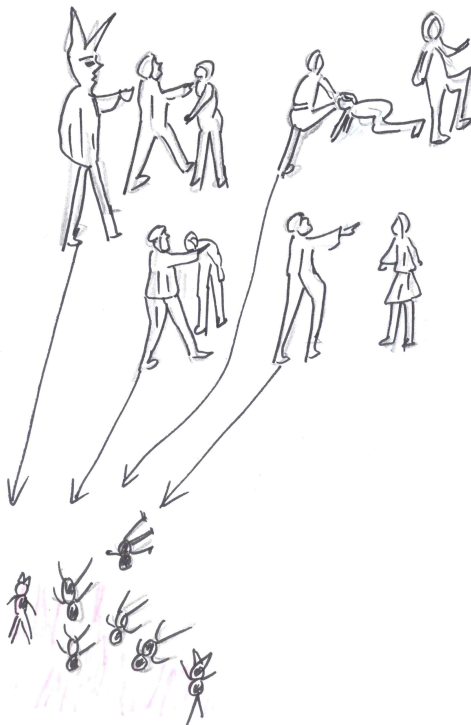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피해 얼마든지 안 죽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맞아 주며 환영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판국이 악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무지한 자들은 더 극심하게 핍박을 했고,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아갔습니다. 고로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로 안 가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대의 판국이 기울어졌기에 모두 살리는 길은 메시아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사탄 마귀야. 악한 자들아. 의인들을 괴롭히려면 괴롭혀라. 그러면 너희 사탄 마귀들과 악인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고, 너희는 악한 행위의 값을 영원히 받게 된다. 나는 힘이 없다. 너는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

롭혔으니 너의 행위대로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아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하며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이 지옥에 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3> * 설교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자막> “사탄 마귀야. 악한 자들아. 의인들을 괴롭히려면 괴롭혀라. 그러면 너희 사탄 마귀들과 악인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고 악한 행위의 값을 영원히 받게 된다. 나는 힘이 없다. 너는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혔으니 너의 행위대로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아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탄과 악인들의 악한 행위로 의인들이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고 악평과 핍박으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탄 마귀와 악인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의인에게 유익이 되고 보상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탄과 악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의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대로 지옥에 갔다고 해서 의인이 손해 본 것이 복구가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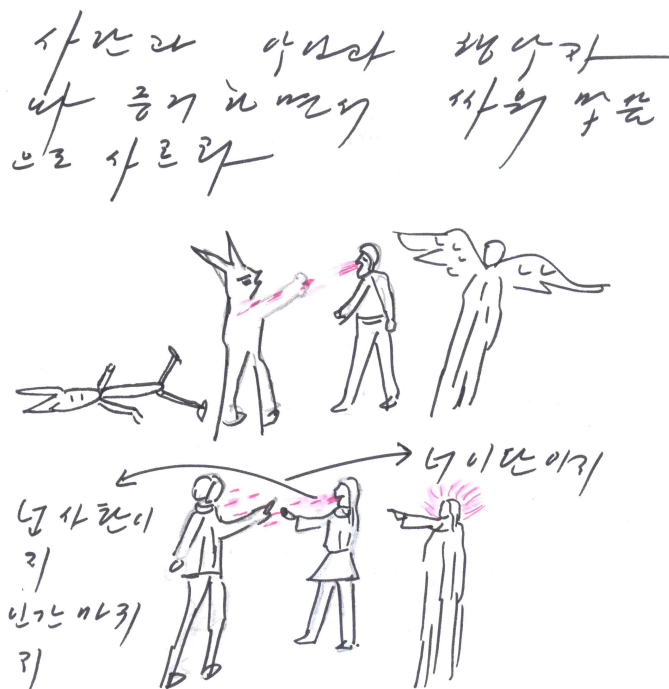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사탄 마귀들과 악인들은 어차피 결국 사망 지옥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피해를 입고 생명의 손실을 보고 구원역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의인들만 손해를 본 것입니다. 고로 손해 보지 말고 시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귀와 행악자들과 싸워 이기고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탄과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불살라야 합니다. <영상4 끝>

<영상4> * 설교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① 사탄과 행악자들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

<자막> 사탄 마귀들과 악인들은 어차피 결국 사망 지옥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피해를 입고 생명의 손실을 보고 구원역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의인들만 손해를 본 것입니다.

②



<자막> 고로 손해 보지 말고 시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귀와 행악자들과 싸워 이기고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탄과 악인

들의 악한 행위를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 결국 형벌받는다라는 것만 생각하며 우리가 고통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고통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게 주님과 함께 담대히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악인들아.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너희가 악하게 행한 대로 지옥에 가라.” 하고 두고보고 있지만 앓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고로 의인들이 더는 못 다치게 하셨고, 악한 자들이 더는 생명을 못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희생’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몸으로 값을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만일 시대의 판국이 기울어졌는데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셨다면, 마귀와 악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며 구원역사를 막았기에 더 이상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의인들이 마귀와 악인들에게 당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마귀와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지만, 의인들이 손해 본 것은 복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들만 손해입니다. 너무 큰 손해입니다. 구원의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고로 주님은 의인들에게 해를 끼친 마귀와 악인들이 지옥에 가면 끝난다고 하며 두고보고 있지만 앓으시고, 즉시 시대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시고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악인과 마귀는 어차피 행한 대로 지옥에 가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희생’ 함으로 즉시 악한 자들의 활동을 막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 말씀입니다.

또 꼭 알아야 될 깊은 말씀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3.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무조건 예정이라고 하며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어 주셨겠습니까?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하고 악평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최고 중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정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불신하고 책임을 못 함으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영상5 끝>

<영상5> * 설교 속도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자막> 영상 중간 중간에 설교 내용 중 핵심 내용 자막으로 넣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만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의인으로서 무지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최고 중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일점일획도 죄가 없는 온전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중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시대 최고의 중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 중요> 나의 십자가 죽음을 무작정 예정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예정대로 죽었다’ 라고 성경을 풀고 믿고 말하는 자들은 나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자라도 잘못됐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인

하여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정으로 본다면...〉

첫째, 자기는 나 예수를 죽인 자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연대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며, 새 시대가 와도 구시대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의 죽음은 예정인데, 내가 무엇을 회개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죄를 회개하겠느냐. 이런 자들은 심판의 날에 그 죄로 인하여 먼저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 고로 의인이 못 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둘째, 인간이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책임을 못 함으로 나 예수가 십자가를 졌는데 이를 알지 못하면, 자기 책임분담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 항상 자기가 할 일을 못 하고 사는 자가 되어 사망권 속에 산다.

셋째, 십자가 죽음을 예정으로만 생각하니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안 받아야 할 고통과 억울함까지 예정으로만 생각하여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을 예정으로 알고 살아간다. 고로 늘 예정도 아닌 십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인간이 믿고 따르는 책임을 못 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첫째, 자기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됩니다. 둘째, 자기 인생에서도 책임을 하여 자기도 십자가의 고통과 삶의 고통을 받지 않고, 받을 환난도 책임을 하여 받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책임을 다 하니 삶 가운데 자기 책임을 못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니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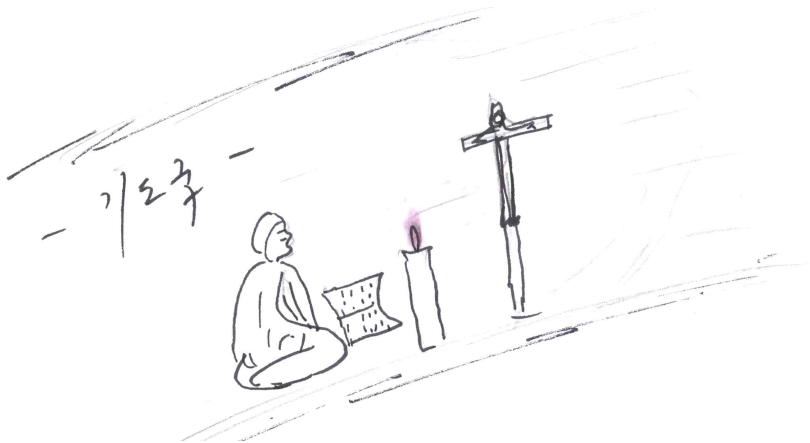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제대로 못 풀면, 자기 인생도 다른 어떤 것도 모두 예정으로 보면서 계속 그 속에 묶여서 마귀들과 악인들로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운명이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늘 예정으로만 풀고 사니, 평생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죽음의 골짜기와 지옥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고로 인간의 무지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고통의 사망권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말세의 불 심판을 지구의 멸망으로 보는 자들이 불안과 공포의 마음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이상자들입니다.

선생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몸이 아니라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책임을 못 하여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셨다.’ 하고 십자가 죽음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제대로 알아서 내 책임을 하고 구시대 사망권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정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책임을 못 하고 사명을 못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같이 죽었다. 나도 나의 책임을 못 하면 예수님께 또 십자가 고통을 주게 된다.’ 라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죽인 자손임을 회개하여 신약 연대죄를 벗어나고 주님을 죽인 자손의 대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을 하여 주님께 고통을 안 주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새 시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시대 진리로 약속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신약권을 벗어나는 성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근본 심정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할 일을 하는 책임을 해야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게 되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선생은 주님의 재림의 뜻을 깨닫고 땅에서 이루는 육적 휴거 역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면 주님을 어떻게 맞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영과 육이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사망권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하나의 휴거다. 구원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장이 나팔 부는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땅에서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재림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영과 육을 사망권과 구시대에서 끌어내는 것이 육이 있는 자들의 휴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신약말씀으로 구약 사망권에서 끌어내어 신약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듯이, 이 시대도 주님은 선생을 통해 새 말씀, 곧 성약 재림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신약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성약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영상6 끝>

<영상6>

① <도표> 구시대 사망권에 있는 영과 육 → 새 시대 생명권

시대 말씀 휴거, 구원, 거듭남

<자막> ‘영과 육이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구시대 사망권에서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하나의 휴거다. 구원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② <도표> 육적 휴거 도표 (성령집회 때 도표)

<자막> ‘천사장이 나팔 부는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땅에서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재림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영과 육을 사망권과 구시대에서 끌어내는 것이 육이 있는 자들의 휴거다.’

③ 구약 사망권 → 신약 생명권

신약 말씀

신약 사망권 → 성약 생명권

성약 말씀

<자막> 신약말씀으로 구약 사망권에서 끌어내어 신약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듯이, 이 시대도 주님은 선생을 통해 새 말씀, 곧 성약 재림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신약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성약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부활되어 육적 휴거를 이루어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의 영이 재림하시어 준비된 우리의 영을 휴거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영적 휴거를 이루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육’은 땅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영’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 기간이 1000년입니다. 이것이 1000년 성약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진리가 생명입니다. 진리가 길입니다. 진리가 구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어 선생이 그동안 깨닫고 외치고 증거하고 실천했던 말씀을 전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영상7>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행하여 사망에서 나와야 된다. 진리가 생명이다. 자기가 죄로 묶여 사망권에 있는지 모르면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영원히 사망권에 있게 된다.

구약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예수를 죽일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고 죽였지, 죄로 생각했느냐. 그러니 회개를 안 한 것이다. 자기 죄, 시대의 죄, 연대죄를 다 회개해야 한다. 호리도 남김없이 죄를 다 청산하도록 회개해야 거기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는 예정대로 죽었다. 잘 죽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은 지극히 육적인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들로서 나를 죽인 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그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무지해서 죄 때문에 그 악한 행위로 나를 죽인 것이다.

그들이 잘 믿고 잘 따르고 잘했으면 내가 왜 죽었겠느냐.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어 줘야 죄인이 살게 된다. 그 시대가 나를 잘 믿고 따라오는데, 왜 내가 죄인도 아닌 의인을 위해 대신 죽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무지한 이론을 내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만 짓게 한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나 예수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믿으니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냐. 섭리사에 온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 죽음의 참의미를 알고 깨달아 너희의 죄와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여 신약 연대죄를 벗어나고, 또 자기 책임을 함으로 나 예수가 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고 새 구원역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시대도 나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내가 이 시대에 보낸 사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함으로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초림 때도 나를 못 박은 자들은 구시대 사망권에 처

해 있었고, 나 예수를 못 박지 않고 사랑하며 따라온 자들은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와 아들로 부활하여 시대 뜻을 이루고 구원역사를 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나의 말을 듣고 따랐으니 나와 내가 보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 구시대 사망권에서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와 나의 신부가 되어 성약 구원을 이루며 뜻을 펴고 있다.

자기 책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 나 예수를 불신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무지하게 말하니, 얼마나 나 예수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내가 맹목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으로 아느냐. 나는 나를 불신한 죄인들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시대의 판국이 기울어 그대로 두면 구원의 길이 닫히기에 내 몸을 내어 주고 값을 지불하여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나 예수의 죽음이 무조건 예정이겠느냐. 인간이 책임을 못 한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 내가 대신 책임을 해 주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어 줌으로 그들을 살린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이라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니 나를 불신하고 핍박한 것이다. 복음을 전했으나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핍박하니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고 그들을 살린 것이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시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악평하여 구원의 길을 막는 마귀와 악한 자들아. 너희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아라.” 하고 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냥 놔두면 그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도 다 악평으로 기울어 구원역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죽어 주고 모든 자들을 살리는 길을 갔다.

사탄, 마귀, 악인들이야 결국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느냐.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당한 것이 복구되고 치료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 주고 희생해 주었으니, 너희는 사탄 마귀에게 당하지 말아라. 아예 악인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여라. 사탄과 악인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몸이니 막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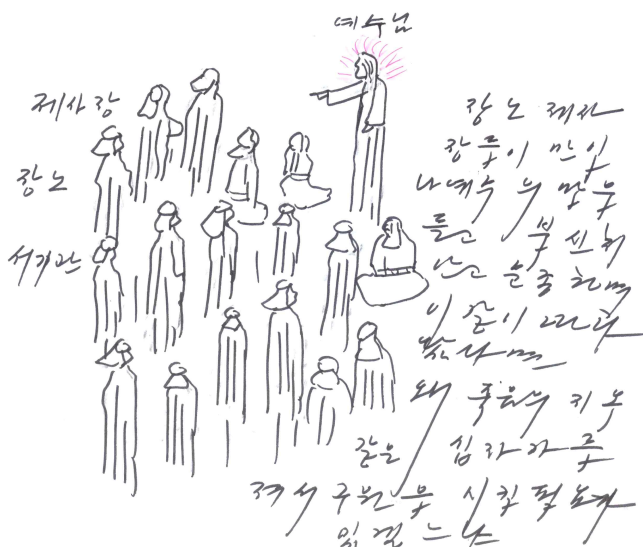
흔히 의인들은 “사탄아. 악인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그 행위대로 지옥에 가라. 그러면 끝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며 고통을 받지 말아라. 자기 애인과 자식을 죽인 자를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된 것이 복구되겠느냐. 10년, 100년이 가도 도움이 안 된다. 아예 당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이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나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죽어 주고 사망에서 영으로 살아나 이긴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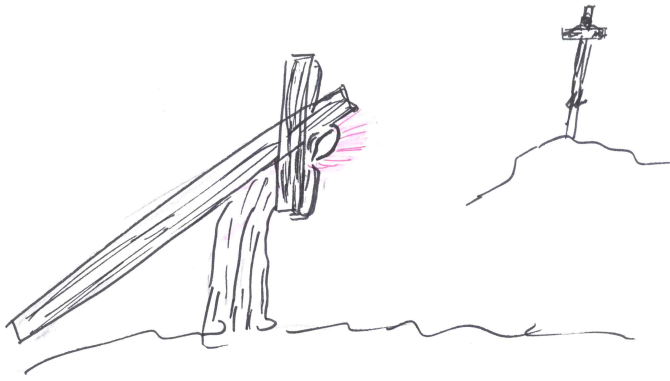
오늘 내가 전한 생명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라. 평강을 빈다.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예정을 풀어 말씀한 주 예수다. 살롬!

<영상8> 마지막 핵심 말씀을 정리한 예수님 말씀과 인사

* 영화 영상 이용하여 영화처럼 영상 제작하여 마무리



<예수님 말씀> 2000년 전 나 예수가 육의 몸으로 이스라엘에 왔을 때, 만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불신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왔다면, 왜 내가 지옥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면서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님 말씀> 그들이 나 예수를 불신하고 이단시하고 죄인으로 여겨 죽인 것이다.

* 초안 7페이지

<예수님 말씀> 이 시대도 나 예수가 내가 보낸 사명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니, 이 시대에 나를 믿고 사는 자들이 또 불신하고 악평하고 이단시했다. 이 시대 기성인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 또 책임을 못 하고 악평하고 불신하고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갇혔다. 고로 나 예수는 또 십자가를 졌고, 내가 보낸 자도 나의 육으로 시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나 예수가 내가 보낸 사명자의 육신과 함께 죽어 주고, 성약 신부의 길을 더욱 열어 주어 모두 나의 재림을 맞도록 조건을 세워 주었다.



<예수님 말씀> 시대의 환난과 핍박은 예정이 아니라 그 시대가 책임을 못 한 연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부지런히 행하여 시대 구원을 받아 신부로 온전히 예비하여 나의 재림을 맞아라. 샬롬!